전세계 최첨단 항공 및 방위산업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줄 항공산업의 대축제인 '서울에어쇼 2001'이 오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

서울에어쇼 2001과 항공우주산업

| 편집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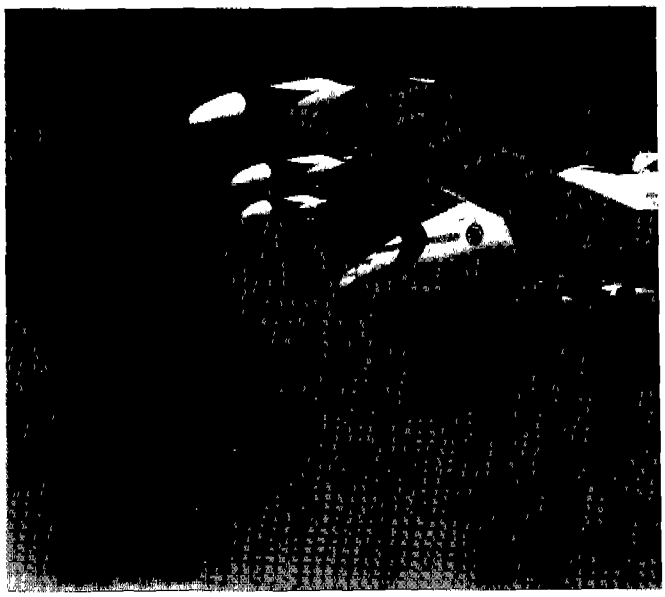
방위산업까지 비즈니스 영역확대

한국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주최하는 서울에어쇼 2001은 오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 지난 '96년, '98년에 이은 세번째 행사로 올해에는 정식명칭이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01(약칭: 서울에어쇼 2001)'로 바뀌었으며 기존의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외에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공동주최자로 참가하여 항공우주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까지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98년에 비해 다소 확대된 규모로 치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서울에어쇼는 전시업체 25개국, 250개사, 실내전시 900부스, 항공기 및 지/해상장비 60여점 야외전시, 살레 30동, 관람객 30만명의 행사규모를 목표로 국내외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체를 유치중이며 행사기간내에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장비전시, 항공기 시범비행 및 곡예비행, 비행시뮬레이션 대회 및 각종 이벤트, 학술세미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서울에어쇼 2001 개최 비교

구분	내용	'96년	'98년	'01년	예상비고('98년 대비)
참가국		21개국	17개국	25개국	47% ↑
참가업체	국내기업	79개	41개	50개	22% ↓
	해외기업	135개	114개	200개	175% ↑
	소계	214개	155개	250개	61% ↑
부스	국내기업	651부스	243부스	420부스	72% ↑
	해외기업	406부스	273부스	480부스	76% ↑
	소계	1,058부스	516부스	900부스	74% ↑
살레	국내기업	11동	10동	10동	-
	해외기업	13동	12동	20동	66% ↑
	소계	24동	22동	30동	36% ↑
관람객		55만2천명	22만명	30만명	36% ↑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대상기종 경쟁 치열

특히 올해 서울에어쇼에는 최신예 전투기 제작사의 참여

및 시범비행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전력증강사업으로 차세대 전투기, 차세대 공격헬기, 대공미사일, 조기경보기 등과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중이거나 추진될 예정이어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참가업체들의 비즈니스 활동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4개 대상업체들의 에어쇼 참가신청으로 홍보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프랑스 다쏘사의 라팔 전투기를 비롯하여 미국 보잉사의 F-15E 전투기 등 최첨단 전투기들의 각종 시범비행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서울에어쇼 2001에서는 국내에서 운용되는 항공기를 비롯, 미 태평양사령부 소속의 F-15C, F-16C, P-3, C-12, KC-135, A-10, 미 육군 소속의 OH-58, CH-47, AH-64, RC-12, RC-7 등의 항공기가 전시되며 이외에도 C-17, B-1, B-52 등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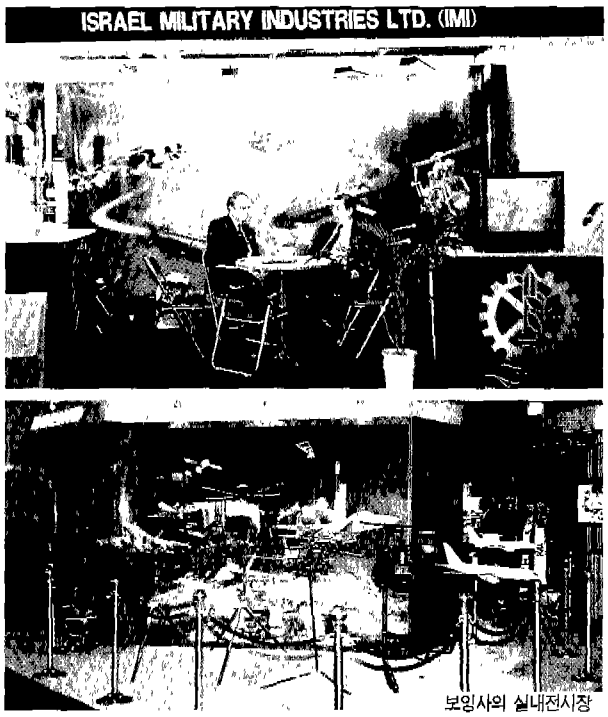
미국 공군의 곡예비행팀 선더버드

이번 서울에어쇼의 또 다른 특징으로 국내 민간항공업계의 참가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0인승 이하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제 전환후, 이 사업에 참여할 업체들의 움직임이 주시되고 있는 가운데 브라질의 엠브레어사는 새로 개발된 70인승 ERJ-170 리저널기를 이번 서울에어쇼에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에어쇼 2001에서는 세계적인 곡예비행팀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미국 공군의 선더버드(Thunderbirds)팀과 우리나라 공군의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Black Eagles)의 곡예비행이 계획되어 곡예비행의 진수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에어쇼에서는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비행시뮬레이션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고 있다.

전시참가자 및 비즈니스 위주의 행사운영 중점

서울에어쇼 공동운영본부는 두 차례의 에어쇼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 전시참가자 및 비즈니스 위주의 행사운영, 국제 수준의 전시시설 구비, 침체된 국내 항공산업의 활로모색 기회제공 등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10월 15일~21일까지 7일간의 행사기간중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은 비즈니스데이(Business Days)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퍼블릭데이(Public Days)로 철저히 분리해 운영함으로써 전시참가자들에 대한 비즈니스 활동을 보장하고, 아시아권 주요 구매결정자를 VIP로 초청하여 전시참가자간의 상담을 주선하며 국내외 주요 VIP의 행사장 방문을 유도하여 실질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강



보잉사의 실내전시장

조했다.

참가업체수는 4월 10일 기준 14개국, 44개 업체, 310부스, 실데 6동 판매. 5월 20일 기준 16개국, 66개 업체, 524부스, 실데 18동이 판매되었다. 6월 20일 기준 16개국, 73개 업체, 545부스, 실데 19동이 판매되었고 7월 15일 기준 118개 업체가 등록했으며 계속적으로 참가업체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현 추세대로라면 당초 설정했던 25개국 250업체의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공동운영본부는 예상한다.

또한 공동운영본부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분야의 육성을 위해 세계 유수의 관련 업체를 유치하여 기술교류 및 산업협력의 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방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서울시, 성남시 등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어쇼가 항공산업에 미치는 효과

에어쇼는 각 국가나 기업들이 개발한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과 장비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항공우주분야의 기술력을 검증받고 기업간 비즈니스의 장을 제공하는 자리이다. 따라서 외국업체와의 납품계약을 비롯해서 항공업계의 수입외에 관계자들의 체재에 따른 관광수입 등 부수적인 효과도 적지 않다.

항공우주산업은 기계, 전기, 전자, 소재 등 연관산업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항공산업의 발전은 국내 산업구조의 질적인 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되어야 할 항공산업의 미래 발전적인 측면에서 에어쇼로 인하여 파급될 수 있는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에어쇼를 통해서 항공우주선진국들은 입지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기술수준이 뒤떨어지는 나라들은 자국의 항공산업 발전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에어쇼를 개최한다.

아시아지역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싱가포르, 일본, 중국, 인도,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에어쇼를 열고 있지만 이중에서 5개 정도만 존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싱가포르는 이미 생존력을 갖추었고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말레이시아, 호주, 한국, 중국 등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어쇼는 현란한 곡예비행이나 첨단장비 전시회 같은 볼거리가 행사의 전부는 아니다. 에어쇼는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말 그대로 공중에서 펼쳐지는 '쇼'이지만 참가업체들과 관계자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비즈니스의 장이다. 최첨단 비행기들이 하늘을 수놓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참가업체들간의 치열한 판매전이 벌어진다. 미래 기술개발을 위한 제휴나 합자투자를 위한 협상을 비롯하여 자국제품의 수출과 관련된 여러가지 비즈니스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해외업체들에게 행사장 임대료를 받음으로써 적지않은 외화를 벌어들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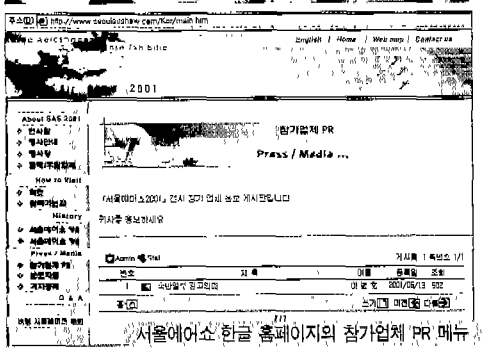
이번 서울에어쇼에서는 1999년 10월 1일 항공3사를 통합하여 출범한 국내 유일의 항공기 종합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국내 항공산업 발전의 견인차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서울에어쇼 공동운영본부의 대내외 홍보활동

지난 1월 5일, 한국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서울에어쇼 2001의 성공적인 행사준비를 위해 협회내 서울에어쇼 공동운영본부 사무실을 개소하여 본격적인 행사준비에 들어갔다. 이어 서울에어쇼 공동운영본부는 2월 19일에 해외 참가업체의 적극적인 유치와 서울에어쇼 2001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서울에어쇼 공식 영문 홈페이지(www. seoulairshow.com)를 개설했다.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Why Exhibit in SAS 2001', 'Reservation Form', 'Manual', 'Order Form', 'Exhibitor Services'로 구성된 메뉴를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0일에는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에어쇼 2001 프레스 브리핑 개최로 대내외 홍보에 적극적으로 돌입하기 시작했으며 이 브리핑에서는 서울에어쇼 2001의 개최목적, 행사개요, 중점추진 사항 등을 발표했다.

서울에어쇼 2001 프레스 브리핑



서울에어쇼 한글 홈페이지의 참가업체 PR 메뉴

세계 각국의 VIP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 국제적인 행사에 걸맞게 세계 21개국 참모총장을 대상으로 초청장을 발송했으며 한국주재 각국 대사관에도 초청장을 전달해 귀빈초청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또한 공동운영본부는 지난 5월 20일 1,800여명의 선수와 12,000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제23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본선대회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대회참가자들에게 홍보활동을 벌여 눈길을 모았다. 이날 공동운영본부는 서울에어쇼 2001의 대국민 사전 홍보로 지난 '98년의 서울에어쇼 주요 장면을 방영하고 기념품을 배포했다.

5월 31일에는 영문 홈페이지 개설에 이어 공식 한글 홈페이지를 정식 운영하게 됨으로써 온라인상에서 국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게 되었다. 이번에 새로 개설되는 한글 홈페이지에는 행사장의 전체적인 조망을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장 평면도', 행사장 입장티켓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록하고 이의 예약 및 구매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티켓', 관람객이 행사장까지 가장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마련된 '찾아가는 길' 및 1, 2회 에어쇼에 대한 자료와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Histroy' 메뉴가 제공된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서울에어쇼 2001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가업체 PR' 메뉴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참가업체들은 자사의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일반인 및 관련 업체들은 참가업체들에 대한 궁금점을 해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서울에어쇼 2001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서울에어쇼 2001 전국 비행시뮬레이션 대회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접할 수 있으며 '대회요강'과 '참가신청', '게시판' 등의 메뉴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6월 4일에는 국방부, 육군, 공군, 해병대 등의 군관련 기관과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및 서울에어쇼가 열리는 성남시와도 협조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배너를 게시하고 있다. 이 배너를 클릭하면 서울에어쇼 2001 공식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된다. 또한 엠파스, 심마니, 라이코스, 한미르 등 국내 주요 검색엔진에서 검색어 입력 시 최상단에 홈페이지 링크가 출력되도록 등록을 완료했다.

지난 5월말 세계 각군 참모총장을 중심으로 21개국 VIP에 대한 초청장 발송을 완료한 공동운영본부는 중국 및 말레이시아를 추가 초청대상으로 선정, 2차 초청장을 발송했다. 또한, 올해가 '한국 방문의 해'인 만큼 공동운영본부에서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리플렛 제작도 완료했다. 총 2만부의 리플렛을 제작해 이중 1만5천부는 관광공사를 통해 해외의 각 여행사에 배포토록 조치하였으며, 나머지 5천부는 국내 여행사 및 각국 대사관에 배포될 계획이다.

서울에어쇼 공동운영본부는 이번에 배포하는 리플렛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국어로 제작했는데 이중 일어 및 중국어 리플렛은 '96, '98 서울에어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으로, 한국을 찾는 관광객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인 및 중국인 관광객들의 유치에 초점을 두고 제작되었다. 특히 중국어 리플렛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중국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에도 배포토록 하였다.

리플렛은 외국인 관객의 관점에서 서울에어쇼 2001을 잘 조망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특히, 한국의 블랙이글과 미국의 선더버드의 곡예비행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관람객들이 직접 조종하여 비행기 조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비행시뮬레이션 및 서울에어쇼 2001 행사의 일환인 '전국 비행시뮬레이션 대회'에 대해서도 소개되고 있다. 또한 교통편 안내도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려움 없이 행사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서울에어쇼 공동운영본부는 서울에어쇼 기획이벤트로 개최되는 전국 비행시뮬레이션 대회의 요강을 발표했다. 대회는 전투기 부문은 인포그램(Infogram)사의 Falcon 4.0, 경항공기 부문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FS2000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대회규정은 이론시험인 예선전을 거쳐 본선 및 결선에서 경항공기(C-182S) 부문은 이륙 및 착륙, 전투기(F-16) 부문은 2대 2 교전으로 대회를 치른다.

대회는 오는 9월 2일 부산 예선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서울 대회가 진행되며 본선경기는 서울에어쇼 일반 관람일인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주말을 통해 행사장내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 참가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seoulairshow.com)를 통해 개인 및 각 비행동호회원 누구나 가능하다.

서울에어쇼 공동운영본부는 지난 1월달에 발족한 이래 기획, 유치, 홍보, 전시장 조성 및 시설, 행사운영 부분으로 추진일정을 계획해 차질없는 에어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서울에어쇼 2001 행사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에어쇼 2001의 시작은 '98년 에어쇼가 끝남과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사진행을 위한 성과분석 등 차기 행사를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서울에어쇼 2001의 본격적인 준비는 지난 1월 서울에어쇼 공동운영본부가 발족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부터 적극적인 전시업체 유치와 항공기 유치작업에 착수하였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행사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다른 차질없이 외국인사 초청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시참가 업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사준비는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설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에어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번 서울에어쇼는 기본적으로 '98년 서울에어쇼와 마찬가지로 전시참가자 및 비즈니스 위주의 행사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행사의 큰 틀은 다르지 않지만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이번 서울에어쇼는 '96, '98년 서울에어쇼보다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국민친화적 에어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이번 에어쇼에서는 세계적인 곡예비행팀인 미국의 선더버드팀이 곡예비행을 선보일 예정이며 비행시뮬레이션 대회를 개최하여 일반인들의 직접 참여와 항공우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둘째, 공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3개 기관의 공동주최로 개최되므로 역대 에어쇼에 비하여 많은 지상장비가 전시될 예정이며 한국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의 현주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상장비의 보다 많은 전시를 위하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국내 방산업체의 전시를 독려하고 있다.